

정책개발 능력 키워야



정 동 운

〈유공 석유사업 기획·업무담당임원〉

및 사랑을 받지 않고는 해당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. 그러나, 현재 정유산업은 그간의 국내산업에서 차지한 위치 및 역할에 비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. 예를 들어, 석유제품가격, 정유회사의 손익상황 등에 대해 일반 소비자 및 언론 등이 갖고 있는 오해는 그동안 정유산업에 대한 홍보가 얼마나 미약했느냐 사례가 될 것이다.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개별기업의 차원에서 보다는 업계의 대변자인 석유협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.

현대 경제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, 어떤 조직도 존속·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. 이러한 의미에서 석유협회는 하루 빨리 자유화 개방화시대 및 이에 따라 변화하는 회원사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며, 이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제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.

물론, 이를 위해서는 회원사들의 보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협회 차원의 능동적인 자세 전환 및 분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. 끝으로, 현재의 변화의 물결에 슬기롭게 대응함으로써 향후에도 석유협회가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유산업의 대변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를 바란다. ♣

현 재 국내 석유산업은 자유화 개방화라는 시대적 조류속에서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다. 이러한 상황은 석유협회에 있어서도 스스로의 위치를 되돌아 보고,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.

이제 자유화 개방화 시대에 들어선 현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은 협회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 따라서, 석유협회가 향후에도 정유업계 전체의 권익증진을 통한 발전을 선도하는 단체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자유화 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, 이러한 바람에서 업계의 일원으로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.

우선 석유협회는 업계 전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변자로서의 기능을 강

화하는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다. 이를 위해서는 업계 공통의 문제를 발견하고, 이에 대한 대안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개발 능력을 키워야 한다. 보다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계의 공통문제를 개발하여 종합적인 조사 분석활동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, 능동적으로 정부 등 외부에 건의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예를 들어, 점차 강화되고 있는 환경 안전분야,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선 석유유통시장에서의 업계 간 공정경쟁 유도 등은 협회 차원의 역할이 증대되는 분야라고 생각된다.

또한, 업계의 이미지를 올바르게 선도 또는 제고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홍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.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소비자, 언론, 정부 등 고객에게 좋은 인식